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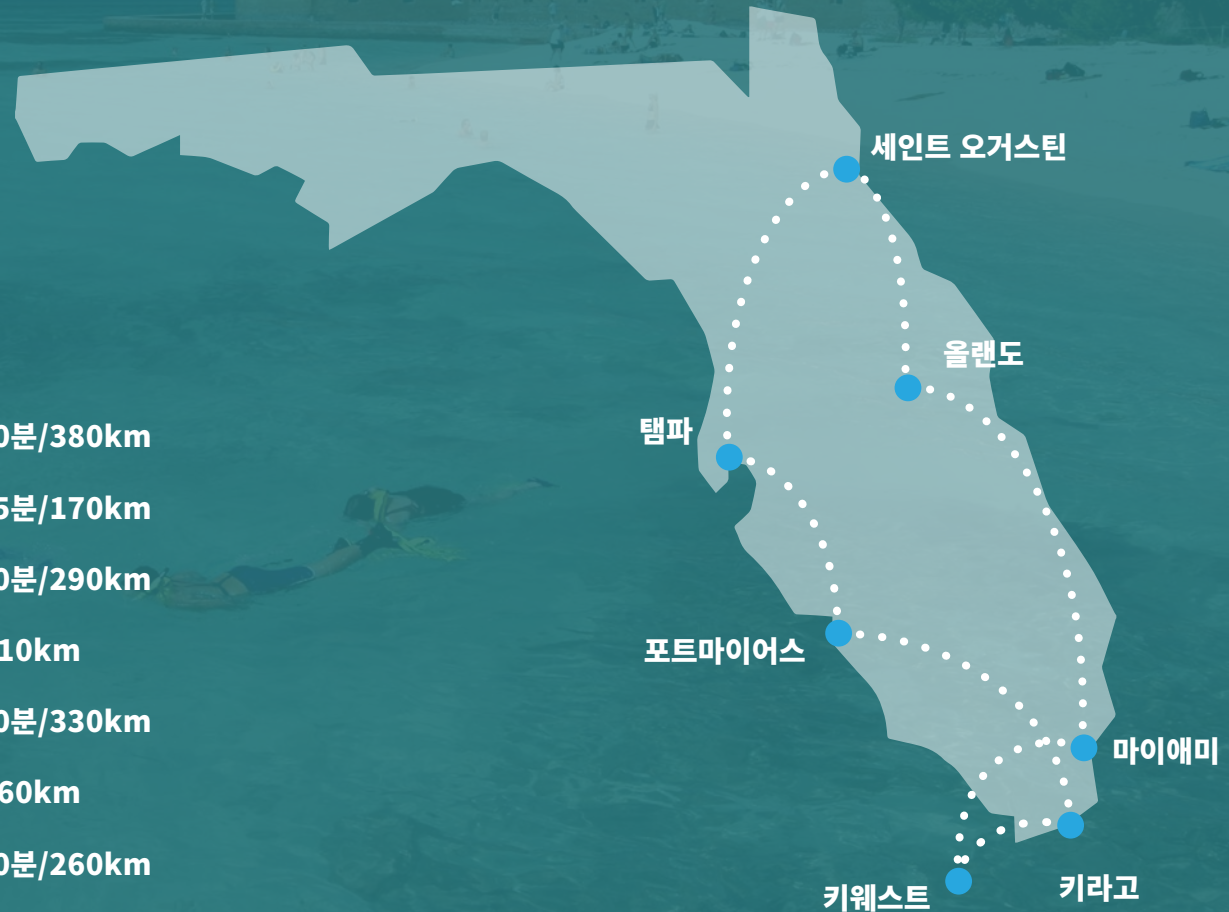
INSIDER  
GUIDES  
from GoUSA

# 햇살과 즐거움이 가득한 환상적인 여행지

플로리다주

# 햇살과 즐거움이 가득한 환상적인 여행지

마이애미 출발, 올랜도 도착	3시간 40분/380km
올랜도 출발, 세인트 오거스틴 도착	1시간 45분/170km
세인트 오거스틴 출발, 탬파 도착	3시간 10분/290km
탬파 출발, 포트마이어스 도착	2시간/210km
포트마이어스 출발, 키라고 도착	3시간 40분/330km
키라고 출발, 키웨스트 도착	2시간/160km
키웨스트 출발, 마이애미 도착	3시간 30분/260km



##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포트로더데일

여행의 시작점은 마이애미(Miami) 또는 포트로더데일(Fort Lauderdale)입니다. 마이애미에서 시작한다면 아르데코 지구(**Art Deco District**)의 사우스 비치(South Beach)에서 '미국의 리비에라(American Riviera)'를 만나보세요. 야외 카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카피리나 칵테일을 음미한 다음, 해변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고급스러운 콜린스 애비뉴(**Collins Avenue**)를 따라 쇼핑을 즐기고 쿠바 음식을 맛본 뒤 라틴 클럽에서 춤을 추며 밤을 즐겨보세요. 분위기를 전환하고 싶다면 40분 거리에 불과하지만 너무나 한적해 마치 다른 세상 같은 키 비스케이인(**Key Biscayne**) 해변에서 일광욕을 즐겨도 좋습니다. 윈우드 예술 지구(**Wynwood Art District**)와 리틀 하바나(**Little Havana**)의 풍부한 문화를 탐방하거나 홈팀인 말린스(Marlins)의 야구 경기나 돌핀스(Dolphins)의 미식축구 경기 또는 히트(Heat)야구 경기를 관전하는 것도 놓칠 수 없는 재미입니다. 포트로더데일에서 시작한다면 티끌 하나 없는 해변과 여유롭고 우아한 마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수많은 해변이 하나같이 좋지만, 특히 디어필드(**Deerfield**)와 데니아(**Dania**)가 조용한 편입니다. 수상 택시로 도시를 둘러보거나 보트 투어로 '밀리어네어스 로우(**Millionaire's Row**)'를 지나면서 해변가의 저택을 구경하고, 세계적 수준의 매장과 레스토랑이 입점한 로스 올라스 리버프런트(**Los Olas Riverfront**) 등 현지 명소도 놓치지 마세요. 해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2층으로 된 명품 쇼핑몰 갤러리아(**Galleria**)가 있고 선라이즈(Sunrise)에 있는 소그래스 밀스(**Sawgrass Mills**) 아울렛 몰에서는 착한 가격의 상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숙박: 마이애미/포트로더데일





올랜드 유니버설 스튜디오

## 플로리다주 마이애미/포트로더데일 출발, 올랜드 도착

3시간 40분/380km

포트로더데일 북쪽 한 시간 이내 거리에 있는 델레이 비치 (Delray Beach)는 평화로운 해안 마을로서 대서양의 탁 트인 풍경을 가로막는 고층 빌딩 하나 없고 풍부한 문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모리카미 박물관(Morikami Museum)과 일본 정원(Japanese Gardens)으로 향해보세요. 일본의 유명 정원에서 영감을 얻은 녹지 6곳을 거닐거나, 와코다햇치 습지(Wakodahatchee Wetlands)에서 플로리다의 야생 세계를 만나보셔도 좋습니다. 북쪽으로 20분 거리의 팜 비치(Palm Beach)는 델레이의 세련된 버전으로, 아자나루가 늘어선 워스 애비뉴(Worth Avenue)를 따라 명품 쇼핑을 하고 예술과 장식의 도금 시대 대저택인 플래글러 박물관(Flagler Museum)에서 문화의 향취에도 빠져보세요. 가까운 주피터인렛 등대(Jupiter Inlet Lighthouse)의 꼭대기에 오르는 투어도 놓치지 마세요. 플로리다주 스페이스 코스트(Space Coast)를 따라 자리한 코코아 비치(Cocoa Beach)는 인근에 명소가 많은 북풍의 서핑 마을입니다. 해변에서 서핑 강습을 듣고 유명한 론 존 서프 샵(Ron Jon Surf Shop)을 방문해 필요한 용품을 장만해보세요. 해안

바로 위쪽 타이타스빌(Titusville)에 있는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Kennedy Space Center)를 둘러 보세요. 수십 가지의 놀라운 전시물, NASA의 물품과 잊을 수 없는 체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센터는 커내버럴 국립해안(Canaveral National Seashore)에 면한 메리트섬(Merritt Island) 내에 국립 야생동물 보호구역과 함께 있습니다. 보호구역이나 해안으로 하이킹이나 보트 투어에 나서 플로리다의 청정 자연과 야생동물을 만나보세요. 12곳이 넘는 테마파크가 있는 올랜드 지역은 이미 따로 소개할 필요없을 만큼 유명합니다. 특히 아이들과 함께 여행한다면 월트 디즈니 월드(Walt Disney World)의 매직 킹덤(Magic Kingdom), 에프코트(Epcot)와 애니멀 킹덤(Animal Kingdom) 그리고 유니버설 올랜드(Universal Orlando)의 유니버설 스튜디오(Universal Studios)와 아일랜드즈 오브 어드벤처(Islands of Adventure) 및 시월드(SeaWorld)의 시월드 올랜드(SeaWorld Orlando), 아쿠아티카 올랜드(Aquatica Orlando)와 디스커버리 코브(Discovery Cove) 같은 대규모 테마파크를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단위로 짜릿

한 놀이기구와 쇼를 즐기고 동화 속 캐릭터도 만나보세요. 퍼레이드와 불꽃놀이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입니다. 근처 키시미(Kissimmee)의 올드 타운에서는 옛날식 카니발 놀이기구, 엔터테인먼트와 상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올랜드 남서쪽으로 한 시간도 되지 않는 거리인 윈터 헤이븐에는 특히 어린이들이 더 좋아하는 레고랜드 (LEGO LAND)가 있습니다. 주요 명소를 다 둘러보셨다면 이제 쇼핑을 즐겨 보세요. 올랜드 인터내셔널 프리미엄 아울렛(Orlando International Premium Outlets), 고급 패션 몰인 더 몰 앳 밀레니아(The Mall at Millennia)와 인터내셔널 드라이브(International Drive, I-Drive)를 따라 늘어선 기념품점을 방문해 보세요. 많은 레스토랑이 준비한 인터내셔널 드라이브에서는 미니어처 골프, 고카트 트랙, 헬리콥터 투어 등의 활동도 즐길 수 있습니다. 놀라운 관광지를 제대로 체험하려면 최소 이틀 이상 숙박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숙박: 올랜드



## 올랜 출발, 세인트 오거스틴 도착

● ● ● ● ● 1시간 45분/170km

데이토나 국제 자동차 경기장(**Daytona International Speedway**)과 미국 모터스포츠 명예의 전당 (**Motorsports Hall of Fame of America**) 등 다양한 리조트와 관광지가 있는 데이토나 비치(Daytona Beach)는 레이싱 팬과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즐거움이 가득한 곳입니다. 봄철 가족 여행을 즐기기에 좋은 데이토나 500(Daytona 500) 경주 대회 기간이나 연중 어느 때라도 부담없이 둘러주세요. 36km에 달하는 해변에서 수영과 서핑을 즐기고 일부 모래 사장은 자동차를 타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보드워크 북쪽 끝, 코키나 껍질로 만들어진 데이토나 비치밴드셸(**Daytona Beach Bandshell**)에서 라이브 음악을 감상해보세요. 5백만 달러의 리모델링을 마치고 최근 재개장한 역사적 명소 데이토나 비치 부두(Daytona Beach Pier)도 잊지 마세요. 가까운 데이토나 라군(Daytona Lagoon) 워터파크에는 롤러코스터가, 보드워크 놀이 구역에는 기타 다양한 놀이기구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로 잘 알려진 세인트 오거스틴(**St. Augustine**)은 미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유럽인 정착지로 명맥을 유지한 곳입니다. 스페인, 영국, 그리스, 아메리카 원주민과 미국 흑인이 주를 이루는 400여 년의 역사 속으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좁은 거리를 따라 걸으며 수많은 박물관, 카스티요 드 산 마르코스(Castillo de San Marcos), 폰세 데 레온(Ponce de Leon)의 ‘젊음의 샘(Fountain of Youth)’, 가장 오래된 목조식 학교 사택(Oldest Wooden Schoolhouse)과 같은 랜드마크를 방문해보세요. 역사 마니아뿐 아니라 모두를 매료시키는 도시, 세인트 오거스틴입니다.

숙박: 세인트 오거스틴

## 세인트찰스: 세인트 오거스틴 출발, 탬파/ 세인트피터즈버그 도착

● ● ● ● ● ● ● 3시간 10분/290km

오칼라(**Ocala**)는 스페인 이끼가 드리워진 떡갈나무가 수 킬로미터를 줄지어 있는 플로리다(Florida)주의 승마 중심지입니다. 수정처럼 맑은 물길에서 카누를 즐기고 훼손되지 않은 자연 경관에서 하이킹을 즐길 수 있는 이곳은 수많은 할리우드 영화의 배경으로 등장했습니다. 걸프 코스트(Gulf Coast)의 실버 스프링스(**Silver Springs**)는 플로리다주 고유의 자연 공원 중 하나입니다. 이 지역에서 발견된 물고기의 이름을 딴 타폰 스프링스 (**Tarpon Springs**)에서는 ‘세계 스폰지의 수도(Sponge Capital of the World)’를 관광해보세요. 역사 지구를 거닐며 19세기 초반 건축물에 자리한 골동품 상점과 갤러리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일정의 마지막 목적지로는 탬파(Tampa) 또는 세인트피터즈버그(St. Petersburg)가 좋겠습니다. 탬파에는 동물 관망 구역과 스릴 만점 놀이기구가 있는 아프리카 테마의 부시 가든(**Busch Gardens**), 로리 공원 동물원(**Lowry Park Zoo**), 상어와 함께 수영할 수 있는 플로리다 아쿠아리움(**Florida Aquarium**) 등의 다채로운 관광지가 있습니다. 탬파에서 가까운 도시이자 한때 라틴 문화의 중심지였던 이보 시티(**Ybor City**)는 활기찬 맛집과 나이트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관광지입니다. 멕시코만(Gulf of Mexico)과 탬파베이(Tampa Bay) 사이의 탬파 서부에는 아름다운 해변과 맛집, 신나는 쇼핑가, 데소토 요새 공원(**Fort De Soto Park**), 살바도르 달리 박물관(**Salvador Dali Museum**)이 있는 세인트피터즈버그가 있습니다.

숙박: 탬파/ 세인트피터즈버그

## 탬파/ 세인트피터즈버그 출발, 포트마이어스/캡티바섬과 새니벨섬 도착

●●●●●●● 2시간/210km

새러소타(Sarasota)는 고유의 문화와 해변, 신나는 쇼핑을 즐기기에 좋은 곳입니다. 서커스의 왕 존 링글링(John Ringling)이 설립한 링글링(**The Ringling**) 미술관에서 세계적 수준의 미술품을 감상하고 서커스 박물관(Circus Museum)과 베네치아 고딕 양식의 카드잔(Ca' d'Zan) 저택을 둘러보세요. 남쪽의 포트마이어스(Fort Myers)는 해변 활동과 스포츠를 즐기기에 완벽한 곳입니다. 좀 더 느긋한 분위기를 원한다면 평행사도의 아름다운 백사장이 있는 새니벨(Sanibel)섬과 캡티바(Captiva)섬이 제격입니다. 따뜻한 물속에서 수영하거나 J.N. '딩' 달링 국립 야생동물 보호구역(**J.N. 'Ding' Darling National Wildlife Refuge**)에서 카약을 타고 악어와 새를 비롯한 야생동물을 관찰해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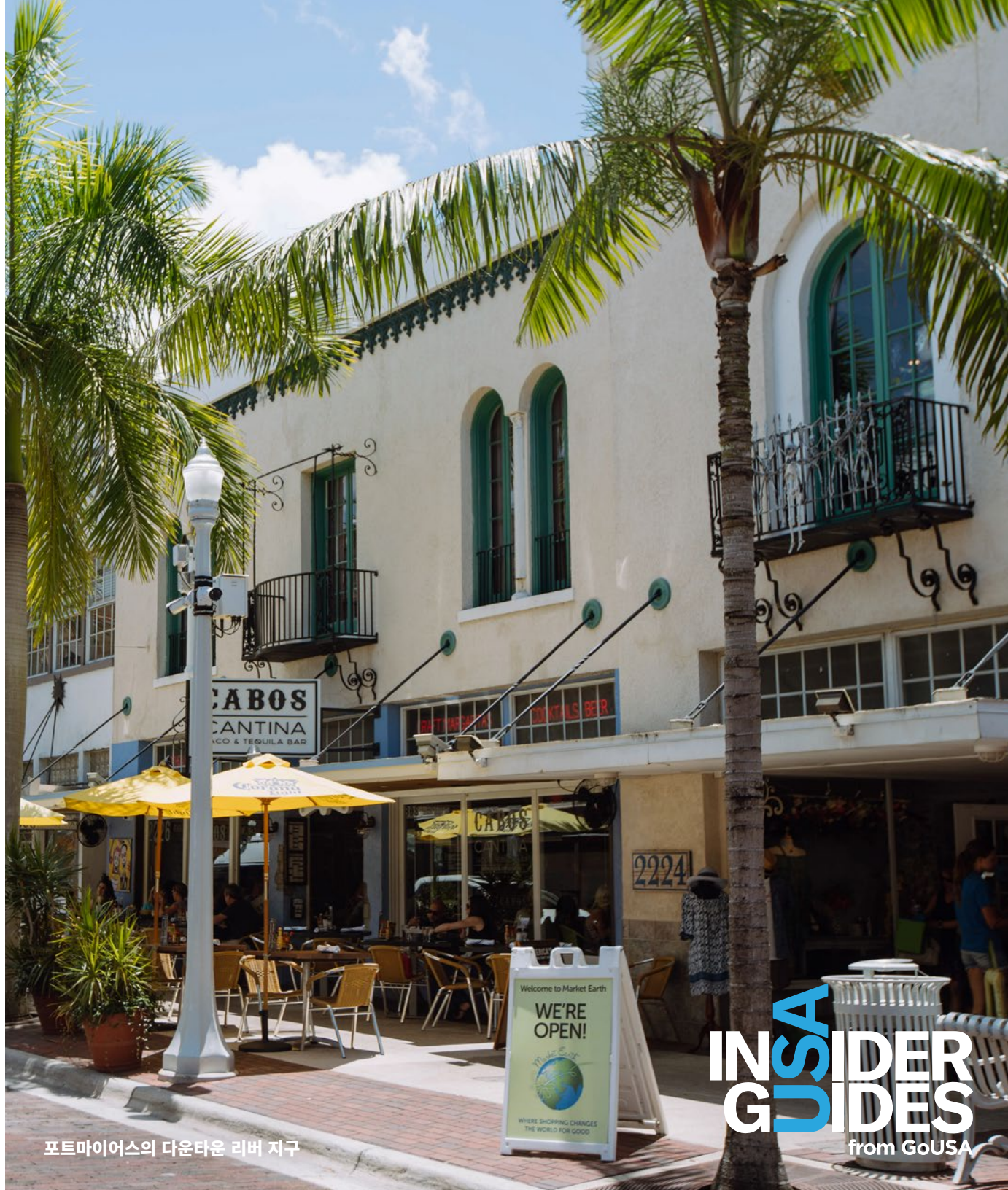
숙박: 포트마이어스/새니벨섬과 캡티바섬

## 포트마이어스/캡티바섬과 새니벨섬 출발, 키라고 도착

●●●●●●● 3시간 40분/330km

남쪽으로 이동하면 미술관과 최신 부티크, 고급 레스토랑과 해변으로 유명한 네이플스(Naples)가 있습니다. 에버글레이즈 국립공원(**Everglades National Park**)은 플로리다 퓨마, 아메리카 악어를 비롯한 수많은 희귀종과 멸종 위기의 동물을 보호하는 습지대 서식지입니다. 카약이나 카누 투어 또는 '늪지 하이킹'에 참가해 바다소, 악어, 흰꼬리사슴과 수백 종의 야생 조류를 관찰해보세요. 시간이 여의치 않다면 공원 외부 업체에서 운영하는 에어보트를 타고 야생 습지대를 탐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키라고(Key Largo)는 플로리다키스(Florida Keys)의 첫 번째 제도로 세계 최대의 인공 암초와 침몰한 USS 슈피겔 그로브호(**USS Spiegel Grove**), 존 펜캠프 산호초 주립공원(**John Pennekamp Coral Reef State Park**), 아프리카 퀸(**African Queen**) 등이 유명합니다. 플로리다키스 국립 해양 보호구(**Florida Keys National Marine Sanctuary**)의 맑은 물은 다이버와 스노클링을 즐기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며 안전한 탐색을 원한다면 유리 바닥 보트도 좋습니다. 칵테일을 음미하며 석양을 감상하거나 바다 전망을 한껏 즐기며 며칠간 푹 쉬어보세요.

숙박: 키라고



포트마이어스의 다운타운 리버 지구

## 키라고 출발, 키웨스트 도착

2시간/160km

키라고에서 차로 조금만 가면 반짝이는 파란 바다와 바다 전망의 유명 레스토랑, 신선한 해산물로 가득한 천국의 섬 이슬라모라다(Islamorada)가 있습니다. 이곳을 경유해 활기찬 나이트라이프와 수상 스포츠, 어니스트 헤밍웨이(Ernest Hemingway)의 고향으로 유명한 미국 최남단의 섬 키웨스트(Key West)를 방문해보세요. 이 섬은 도보로 둘러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듀발 스트리트(Duval Street)에 있는 상점과 바, 카페의 에너지 넘치는 분위기를 느껴보세요. 신비로움을 더해주는 건축물의 정원과 안뜰이 키웨스트를 더욱 특별한 관광지로 만들어줍니다. 어니스트 헤밍웨이 가족 박물관(Ernest Hemingway Home & Museum)을 방문하거나 키웨스트 묘지(Key West Cemetery)의 비석에 새겨진 독창적인 문구들을 읽어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숙박: 클레브라

## 플로리다주 키웨스트 출발, 마이애미/포트로더데일 도착

3시간 30분/260km

마이애미/포트로더데일로 돌아와 리틀 하바나(Little Havana)에서 전통 쿠바 요리를 맛보고 에스프레소에 우유를 넣어 마시는 카페 콘 레체(cafe con leche)를 마시며 공원에서 도미노 게임에 열중한 사람들을 구경해보세요. 멋진 사람들로 붐비는 유명한 사우스 비치(South Beach)로 가서 아르데코 양식의 랜드마크도 보고 미국 최고의 밤 문화도 즐겨 보세요. 마이애미의 해안선은 빌 백스 케이프 플로리다 주립공원(Bill Baggs Cape Florida State Park)처럼 자연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공원부터 온갖 시설과 액티비티로 활기 넘치는 해변까지 다채롭습니다. 링컨 로드(Lincoln

Road), 디자인 지구(Design District)와 발 하버 샵(Bal Harbor Shops)은 명품 디자이너 부티크가 모인 쇼핑의 천국이며 도랄의 돌핀 몰(Dolphin Mall)에서는 합리적 가격의 상품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비즈카야 박물관 및 정원(Vizcaya Museum and Gardens), 윈우드 월스(Wynwood Walls) 등의 수많은 박물관과 무성한 페어차일드 열대 식물원(Fairchild Tropical Botanic Garden), 마이애미 비치 식물원(Miami Beach Botanical Garden)도 인기 있는 명소입니다.



**INSIDER GUIDES**  
from GoUSA

키웨스트의 스매더스 비치

미국 전역의 자세한 여행 정보 및 아이디어를 보려면 [GoUSA.or.kr](http://GoUSA.or.kr)을 방문해보세요.